



**제당업체들 에탄올 생산 선호 지속으로 브라질 설탕 생산량 26% 감소
(Brazil's sugar output down 26% as mills continue to favor ethanol)**

업계 단체 UNICA가 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당업체들이 에탄올 생산에 집중하면서 브라질 중남부 지역의 5월 하반기 설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62% 감소한 220만 톤을 기록했다. 브라질 제당업체들은 사탕수수를 설탕과 에탄올 중 어느 제품 생산에 사용할지 가격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최근 설탕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업체들은 설탕보다 에탄올 생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가, 폭우로 홍수·병해 우려 제기
(Ivory Coast cocoa farmers say heavy rain has raised fears of flooding and disease)**

코트디부아르 주요 코코아 생산지역 대부분에서 평년을 웃도는 강수량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3~8월 중간작의 마지막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수와 병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농가들이 월요일 밝혔다. 전국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난주 강우가 규칙적이면서도 매우 많았다고 전했다. 농가들은 이러한 강우 패턴이 계속될 경우 홍수와 병해 발생으로 인해 8월까지 이어지는 중간작이 양호한 상태로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로코 수입 감소 전망에 EU 밀 수출업체들, 불확실한 시즌 직면
(EU wheat exporters face uncertain season as Morocco set to import less)**

유럽연합(EU) 밀 수출업체들은 다가오는 시즌에도 어려운 시장 여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이 밝혔다. 주요 수입국인 모로코가 가뭄에서 회복되면서 밀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흑해 지역 수출국들은 여전히 적극적인 수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같은 저비용 공급국과의 경쟁, 그리고 프랑스의 알제리 및 중국향 밀 판매 감소는 최근 수년간 EU의 밀 수출을 제약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농가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러시아 공격 지속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운임 소폭 하락
(Russian attacks persist but Ukraine grain freight rates ease, ASAP Agri consultancy says)**

우크라이나의 주요 흑해 항만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물동량 감소로 인해 곡물 운임은 소폭 하락했다고 ASAP Agri 컨설팅이 월요일 밝혔다. ASAP Agri는 이러한 운임 하락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화물 물동량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주 로이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만 및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경우 월간 곡물 수출량이 최대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항만 터미널 운영업체들의 손실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Thomson Reuters